

# 국민권익위 이동신문고 무주에 뒀다

### 예체문화관 대강당서 관련 전문가들 법 관련 민원 상담

무주군은 지난 14일 무주읍 예체문화관 대강당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 상담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동신문고 상담센터는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헤아리고 신속한 처리를 돕는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한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한한민회 등 유관기관의 문화, 교육, 보훈, 재정, 세무, 복지, 노동, 환경, 주택, 건축, 교통, 도로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와 상담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무주군청 각 부서에서도 △관련 법규정 미비, △타 기관 협의, △여러 가지 사유로 민원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상담을 받아 업무처리 효율을 높였다.

무주군청 기획실 오혜동 감사 팀장은 "이동신문고는 현장행정을 구현하고 국민소통, 권익보호 사각지대를 해



무주군은 지난 14일 무주읍 예체문화관 대강당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 상담센터를 운영했다.

소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과 유관기관 전문가들이 전국을 순회하며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종합상담 서비스 창구였던 만큼 많은 군

민들이 찾아와 생활 속 고충부터 법률상담까지 폭넓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가셨다"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무주군, 돌발해충 방제 총력

### PLS 준수 위해 품목·마을별 맞춤형 방제

무주군은 과수작목의 돌발해충인 갈색날개매미충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관 공동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농가는 마을단위로, 행정은 공동방제단을 꾸려 주변 산림과 공원, 도로변 등을 집중 방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6개 읍·면 1639농가(1010ha)에 일반약제를 공급하고 85농가(33.8ha)에는 친환경 자재를 공급했으며 무풍·설천·안성면

은 지난 7일과 8일, 무주읍과 적상·부남면은 9일과 10일 공동방제를 실시했다.

지난 6월에는 약제방제와 트랩, 유인 등을 통해 갈색날개매미충에 대한 1차 방제를 실시한 바 있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이용기 친환경 기술 팀장은 "농약 PLS(Positive List System)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과수 품목별로도 약제가 달라 대규모 공동방제는 어려움이 있다"라며 "우리 군에서는 품목

· 마을별로 방제를 달리해 규정을 준수하며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갈색날개매미충은 외국에서 유입돼 토착화된 해충으로 8월 초에서 10월 초까지 작물의 어린가지에 산란하며 월동 후 이듬해 5월에 부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갈색날개매미충은 과수나무의 수액을 빨아먹어 어린가지를 고사시키고 잎이나 열매에 배설물을 분비해 그을음병을 유발시켜 이동성이 적은 6월 중순까지 1차 방제를 실시하고, 이동성이 많은 8월 초부터 10월 초까지는 농경지와 농경지주변의 산림지역까지 방제를 진행해야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홍삼축제 관광 상품 일자리 참여자 모집

진안군은 진안홍삼축제의 관광 상품 개발을 위한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국비 2700만원을 추가 확보했다.

이번 사업은 공중무용 제1호이자 진안군은 대표적인 문화공연인 '금척무'와 전통문화 '한지'를 결합한 '금

척무 한지인형 무드등 만들기' 사업으로 총 11명으로 모집하여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간 운영할 예정이다. 참여대상자는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65%이하이며 재산이 2억원 이하이어야 한다.

참여 희망자는 8월 21일까지 주소지 면사무소, 워크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조선시대 경사 때마다 공연되던 전통적인 공중무용 제1호인 금척무를 진안의 문화기념품인 인형으로 제작하여 지역주민들과 참여자들의 문화자긍심이 고취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9 진안홍삼축제는 오는 10월 9일부터 13일까지 전북도의 대표 관광지인 마이산 부북에서 5일간 진행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번암지역아동센터가 주최하는 제3회 지역민과 함께하는 '파랑새의 합창' 주제로 최근 번암 소재에 있는 복지회관 3층에서 콘서트를 열었다.

## 장수 번암지역아동센터 콘서트 개최

장수군 번암지역아동센터가 주최하는 제3회 지역민과 함께하는 '파랑새의 합창'이라는 주제로 최근 번암 소재에 있는 복지회관 3층에서 성대하게 콘서트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장영수 군수, 김충문 군의회 의장, 김용문 군의원 등 비롯하여 지역 어르신들로 구성된 메이리 합창단과 색소폰 동호회 기타동호회원들 그리고 학부모 아동청소년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8년동안 갈고 닦은 숨은 실력을 수줍은 미소와 함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로 한껏 뽐내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과 동호회원들의 숨은 실력 행사에 참석한 지역민들은 열렬한 박수와 환호성을 보냈다.

본 행사에 참석한 장영수 장수군

수는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지역어르신들을 모시고 음악을 통해 세대간에 차원높은 문화 교류와 이해를 할수 있는 자리를 만들수 있도록 번암지역아동센터 김영순 센터장님에게 너무 감사하다며, 지역의 파랑새들이 불러주는 아빠의 청춘이라는 노래에 힘을 얻는다며,앞으로도 이런 뜻 깊은 행사를 지속적으로 펼쳐 우리 장수군이 사라져가는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고 힘센 장수군이 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하였다.

번암지역아동센터는 사랑의 열매(복권기금)의 후원으로 8년전부터 파랑새 중창단을 조직하여 활동하기 시작하여 4년전부터는 각종대회에서 대상등을 받는등의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장수=고관호 기자

# 무주,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최우수

### 보건복지부장관상·포상금 3천만 원 확보

무주군은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18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상과 포상금 3천만 원을 받는다고 밝혔다.

'2018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전국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 대해 주민의 복지욕구와 지역 내 복지자원 등의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와 지역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지자체가 4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과 연계, 주민과 행정이 함께 지역의 사회보장 수준을 높인 우수 지자체를 선정한다.

무주군은 행정 내에 맞춤형 복지팀

을 설치하는 등 복지인프라 확대와 사회안전망 구축, 민관 협력 활성화 등 정책 수립 초기단계부터 시행까지 철저를 기해 주목을 받았다.

특히 무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무주군수 황인홍, 민간위원장 이강춘)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과 유관 기관, 단체들이 함께 소통과 협치에 기반을 둔 복지정책을 추진해 호평을 받았다. 무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황인홍 공동위원장은 "무주군의 사회보장정책 이행에 대한 사회보장 수준 향상을 위해 주민 의견을 소중히 듣고, 지역 실정에 맞는 복지정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지역메아리

### 상전면, 찾아가는 복지행정 전력

진안군 상전면(면장 송준섭)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을 맞아 8월 한 달 동안 관내 경로당 순회 방문을 통해 마을 어르신들과 독거주민들의 안부를 확인하는 등 찾아가는 복지행정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8월 무더위 폭염이 본격적인 기세에 들어가자 관내 18개 경로당을 잇달아 찾아가서 어르신들의 안부 확인에서부터 다양한 애로사항 청취 등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복지행정 실천에 여념이 없다.

특히 경로당 순회 방문을 통해 어르신들이 안전한 여름을 보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냉방기 등의 시설을 점검하고, 냉방기 점검대장을 비치하여 고장 난 냉방기는 직접 정비 신청을 의뢰하고 있다.

또한 면장과 맞춤형복지팀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258세대를 방문하여 세대원의 복지욕구, 건강상태, 가족상태 등에 대해 직접 상담을 실시하는 맞춤형 사례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행정'은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행정정보의 개방, 고령화된 면 지역사회의 여건, 행정 중계소로서의 면사무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복지행정 누락 방지 및 수혜가정 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 무주국유림관리소 덩굴류제거단 모집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는 공공산림가꾸기 확대를 통하여 산불 등 산림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적극 기여코자 덩굴류제거단 등 10명을 23일까지 공개 모집·선발한다.

모집기준은 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서 취업취약계층, 산림분야 자격증 소지자, 부양가족 많은 자는 우선 선발 대상이 되며, 재학생과 중복·반복 참여자 및 고소득자는 참여가 제한된다.

자세한 모집 및 선발기준은 산림청 홈페이지 공고란의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 접수는 무주국유림관리소 방문신청 및 우편접수가 가능하다.

채진영 무주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에 선발되는 덩굴류제거단은 도로변, 가시권 등 국민 요구도가 높은 생활권 주변 지역에 분포하는 덩굴류 우선제거 및 숲 가장자리 정비 작업을 수행하게 되며, 지역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